

에스닉 잡지 소재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의 양상과 의미*

이 현 흥**

차 례

- | | |
|------------------------------|--------------------------------------|
| I. 글머리 | 2. 아픔의 공유와 재결합의 꿈 |
| II. 자료의 개관 | V. 소속·안정의 욕구, 그 억압 현실
과 좌표 설정의 고뇌 |
| III. 떠돌이의 고난과 정착의 소망 | 1. 민족의식의 당위적 주장과 그 한계 |
| 1. 타국살이의 고난과 망향의 한 | 2. 허공에 뜬 존재의 뿌리 찾기와
'재일'의 자각 |
| 2. 생존공간으로서의 일본, 그 끝
없는 도전 | VI. 마무리 |
| IV. 가족 이산의 아픔과 재결합의 꿈 | |
| 1. 가족의 결별과 비탄 통곡의 현실 | |

I. 글머리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떤 모습의 소설로 그려내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몇몇 각도로 나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재일한인 생활사의 소설적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이 연구는 「재일한인의 사회 문화 활동 양상과 의미」¹⁾라는 기획 연구과제의 한 분야로 설정된 것이며, 지난해에 필자는 이 기획 과제 아래 재일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에 대해 살핀 바 있다.²⁾

생활사란 개인의 일상적 단위 체험이 시간적·인과적 계기 관계의 축으로 이입·재구성된 것으로서 일종의 생애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험담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경험담이 공간성 혹은 개별적 경험 단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생활사는 시간성을 중시하는 지속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온 생활 집단의 삶과 의식을 두루 조망해 보는 데에는 이러한 경험담 내지는 생활사가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특이한 체험에 대한 현재적 시점의 의미 부여는 물론 그 개인과 함께 한 생활 집단 내지는 문화 집단의 삶에 얽힌 고뇌와 환희, 의식과 세계관 등을 두루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

재일한인 생활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의 동기와 과정, 정착과 주거, 취학과 교육, 취업과 직장생활, 관혼상제, 지역사회 활동 등의 일상 생활과 함께, 조국과의 관계, 일본국과의 법적 제도적 관계 개선을 위한

1) 이 주제 아래 7명의 공동연구자가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분야를 보면, 재일한인 잡지의 현황과 그에 담긴 사회 문화적 의미, 문학작품의 자료 발굴 및 소개와 분석, 언어생활의 실태와 언어의식의 변화 양상, 교육활동을 통해 본 재일한인 사회의 정체성 모색과정과 의미, 재일한인의 전후 민주주의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2) 이현홍, 「재일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319~357쪽.

3) 생활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현홍, 위의 논문, 320쪽 및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 89~90쪽과 관련 각주 등을 참조.

각종의 사회 문화 활동 등등 매우 다양하다.⁴⁾ 이들 생활사 관련 자료는 필자가 이미 살핀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⁵⁾ 소설문학 자료 또한 『在日文學全集』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다.⁶⁾ 이 글에서는 재일한인의 사회문화 활동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주요 에스닉 잡지들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재일한인 생활사소설⁷⁾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잡지는 『漢陽』, 『三千里』, 『靑丘』 등이다.⁸⁾

II. 자료의 개관

『한양』, 『삼천리』, 『청구』에 수록된 소설 중에서 재일한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을 들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양』에는 총 244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 작가는 44명이 99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재일한인 작가는 71명이 145편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국내 작가와 재일한인 작가의 구별은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0) 및 『한국현대문인대사전 상, 하』(아세아문화사, 1991)에 의거 작성한 것인데, 이

-
- 4) 재일한인 생활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 8, 89~142쪽을 참조. 이 논문은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박이정, 2005.8), 353~408쪽에 재록되어 있다.
 - 5) 이에 대해서는 이현홍, 위의 논문을 참조. 위 논문에서 필자는 이들을 문헌자료, 현지채록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그 당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자료는 본고의 참고문헌 목록에 추가할 것이다.
 - 6) 磯貝治良·黒古一夫 편, 『在日文學全集』 전18권, 東京, 勉成出版, 2006.
 - 7)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이란 재일한인 작가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하여 그리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필자가 이런 갈래를 설정하는 까닭은 재일한인의 삶과 문화가 독자성을 지니는 물론, 이를 담고 있는 소설이 상당수에 달하며, 작가나 독자들이 이러한 틀에 입각하여 소설을 향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8) 이들 잡지에 수록된 소설 목록은 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에 보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작품의 목록 및 소설의 총량만을 다음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통계숫자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⁹⁾ 말하자면, 이런 방식에 의거 재일한인 작가로 추정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국내작가이거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재일한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그들의 이름은 필명 내지는 가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⁰⁾ 이런 까닭에서인지 『한양』의 소설 중에서 재일한인의 생활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의 숫자는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반면에 이들은 국내문제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궁핍한 살림살이, 가진 자의 횡포, 정치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 내지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漢陽』에 실린 소설을 두루 읽고 우리나라 문인 대사전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재일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을 13편 찾아낼 수 있었

9) 한양은 일본 동경에서 재일한인에 의해 간행된 우리말 월간 종합잡지이다. 1962년에 창간하여 1984년에 중단될 때까지 통권 177호가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말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재일 작가는 그 숫자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일 터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통계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필자는 한양의 창간에서부터 종간까지 발행인 겸 편집 책임을 맡았던 김인재 선생을 2006년 1월과 2007년 1월에 2차례 만나 재일 작가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고 실명을 밝혀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여운을 남겼다.

10) 이러한 현상을 필자는 두 각도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1974년에 있었던 『한양』의 필화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내작가의 대부분이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양』 전용의 필명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이름을 알 수 있는 국내 작가가 모두 44명인데, 그들 중에서 74년 이후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이전에 몰려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 가능하다 하겠다.

다른 하나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작가 중에서 우리말로 저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들, 이를테면 총련 계열 작가 중의 일부가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만약, 대한민국의 작가가 과거에 가명으로 『한양』에 작품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떳떳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저작 목록에도 이를 추가하고자 할 것인데, 아직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¹¹⁾

- 金鐵洙, <아버지와 아들>(1962년 4월호, 181~193쪽)
 金鐵洙, <금부처>(1962년 7월, 175~187쪽)
 金鐵洙, <脫皮>-東京記 序(1963년 5월, 176~187쪽)
 金鐵洙, <望郷>(1967년 1월, 236~253쪽)
 金慶植, <落日>(1966년 4월, 310~318쪽)
 金慶植, <螳螂의 傳説>(1967년 3월, 284~294쪽)
 金慶植, <地圖>(1967년 8월, 137~145쪽)
 李淳鶴, <哭>(1966년 10월, 233~245쪽)
 丁徹, <石燈>(1967년 2월, 203~211쪽)
 金鶴泳, <얼뜨기>(1967년 11월, 149~160쪽)
 金鶴泳, <山 밑의 마을>(1968년 12월, 135~145쪽)
 朴一松, <山河>(1968년 2월, 131~145쪽)
 李相稷, <장마철>(1971년 신년호, 142~155쪽)

다음, 『三千里』에는 모두 43편의 소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재일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16편이다. 이들의 목록을 아래에 보인다.¹²⁾

- 金石範, <소나기(驟雨)>(1975년 여름, 2호, 196~221쪽)
 金石範, <결혼식 날(結婚式の日)>(1978년 겨울, 16호, 236~250쪽)

-
- 11) 앞으로 『한양』 소재 소설 작품 인용의 출전은 이 목록으로 대신하고, 해당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2) 『三千里』는 일본어로 간행된 계간 종합지로서 총 50권이 간행된 바 있다. 여기에 수록된 소설도 물론 일본어로 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이 비교적 간명하므로 여기서는 우리말로 번역한 제목과 원제목을 밝히고 출전을 곁들였다. 앞으로 삼천리 소재 소설 인용의 출전은 이 목록으로 대신하고, 해당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金泰生, <어느 여자의 일생(ある女の一生)>(1975년 가을, 3호, 82~89쪽)

金泰生, <소년(少年)>(1975년 겨울, 4호, 198~218쪽)

高史明, <해후(邂逅)>(1975년 가을, 3호, 198~216쪽)

姜洋子, <우리집삼대(わが家の三代)>-응모작품 가작 입선작-(1976년 봄, 5호, 208~218)

鄭承博, <쓰레기 처리장(ゴミ捨て場)>(1976년 여름, 6호, 190~217쪽)

鄭承博, <龜裂의 흔적(龜裂のあと)>(1977년 여름, 10호, 234~249쪽)

鄭承博, <통나무 다리(丸木橋)>(1979년 여름, 18호, 238~252쪽)

金達壽, <離鄉>(1976년 겨울, 8호, 202~216쪽)

金達壽, <타향의 바람(他郷の風)>(1977년 봄, 9호, 230~253쪽)

李貞順, <우리집삼대(わが家の三代)>-응모작품 입선작-(1977년 봄, 9호, 168~181쪽)

金英鐘, <어느날의 일(ある日の事)>-응모작품 입선작-(1977년겨울, 12호, 246~253쪽)

金子利三, <무궁화(むくげ)>-응모작품 입선작-(1979년 봄, 17호,)

元秀一, <歸鄉(歸郷)>(1983년 봄, 33호)

元秀一, <사위와 카시오몬(娘婿とカシオモン)>(1983년 가을, 35호, 168~179쪽)

그리고, 『靑丘』에는 모두 10편의 소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재일한인의 삶을 다룬 작품은 원수일의 소설인 <제주의 여름(チェジュの夏)>¹³⁾ 한 편뿐이다.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재일한인 생활사의 서사적 형상을 1)일본 속의 한인마을, 2)세대간의 갈등과 거리조정, 3)망향의 소망과 낮은 고향, 4)갈 곳 없는 떠돌이, 5)민족의식과 통일의 염원 등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

13) 『청구』, 1995년 여름, 통권 24호, 196~215쪽.

다.¹⁴⁾ 당시의 논문에서 살핀 자료들은 그 수록 매체 등의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자료들 중에서 이카이노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 및 자전적 성격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재일한인 사회의 6, 70년대와 7, 80년대 그리고 8, 90년대의 사회문화적 활동상을 대표할 만한 에스닉 잡지를 대상 자료로 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므로 그 포괄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인 작품 모두를 이 한편의 논문에서 두루 언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이들 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용을 몇몇 유형으로 나누고, 그러한 유형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 주제적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¹⁵⁾

Ⅲ. 떠돌이의 고난과 정착의 소망

재일한인의 절대 다수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생존을 위해 도일한 경우이거나, 징용 징병 등으로 강제 동원된 당사자들과 그 후예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도일 후에 공사장 날꾼팔이,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 탄광의 광부, 행상, 암거래상, 공사장의 밥장사, 고물상, 신문배달, 샛바느질, 선술집 종업원, 고학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떠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⁶⁾ 이런 떠돌이들의 궁극적 소망은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돈을

14) 이현홍, 앞의 논문(2003), 110~134쪽을 참조.

15) 목록에 보인 작품 모두를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목차에 제시된 유형에 가장 적합한 작품 2~4편씩 모두 16편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해당 작품은 각 항목의 첫머리에서 제시할 것이다.

16)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홍, 앞의 논문(2003), 104~106쪽을 참조. 이와 같은 떠돌이의 전형은 물론 재일 1세대이다. 2, 3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떠돌이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일상적 삶에 비해 볼 때 아직도 재일한인의 이러한 떠돌이적 삶은 그 특징으로 남아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 정착하려는 꿈이거나, 아니면 비록 일본 땅에서나마 생존의 가능성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삶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망으로 그칠 뿐 그것이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재일한인 에스닉 잡지에 수록된 소설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여 그 실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음미해보고자 한다. 김철수의 <탈피>와 <금부처>, 박일송의 <山河> 등이 전자의 예를 보여주는 작품들이고, 정승박의 <통나무 다리>와 <쓰레기 처리장>, 김태생의 <어느 여자의 일생>과 <소년>, 김달수의 <이향>과 <타향의 바람> 등은 후자의 예들이다.

1. 타국살이의 고난과 망향의 한

도일의 과정과 일본에서의 생활은 재일한인 생활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재일한인 소설은 그들의 원체험인 도일 과정과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해 겪었던 갖은 고생 및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재일 1세대의 이야기들이다. 이 항목에서는 <탈피>와 <금부처>를 중심으로 재일한인 소설이 그들의 생활고와 그 대응의 실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 궁극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脫皮>¹⁷⁾는 젊은 화가 지망생 ‘나’와 무허가 식당 주인인 최영감의 만남과 상호간의 심정적 교류를 그린 소설이다. ‘나’는 화가 지망생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라’던 부친의 유언과도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동포 사회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으며, 고향의 소식 또한 자신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기에 늘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어두운 과거와 단절해서 살고 싶었던 것”이다.

있다 할 것이다.

17) 『한양』, 1963년 5월호(176~187쪽)에 수록된 金鐵洙의 소설 작품이다.

‘나’는 동경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허가 식당겸 대포집인 ‘마산관’에 가끔씩 드나들며 막걸리나 개장국 등의 음식을 사먹기도 한다. 최영감은 같은 동포라며 ‘나’에게 음식도 후하게 주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왜 놈들한테는 지지 말라’며 기대어린 격려를 보내기도 한다. 지금껏 ‘나’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별다른 기대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최영감의 기대에 부담감과 기분 좋은 자극을 함께 느낀다. 한편 그는 일본인 여성 미요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요의 아버지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딸을 조센진놈들에게 주지 않을 테다”라며 둘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산관을 드나들게 되면서 나는 어느새 미요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조간신문에 작품 평이 실린 것을 최영감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마산관을 찾는데, 그 곳에서 최영감이 어떤 일본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일본인이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떠난 후, 최영감은 ‘나’에게 그 일본인과의 악연을 이야기해 준다. 최영감은 강제징용으로 혼자 일본에 끌려왔다가 해방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이다. 고국에 남은 아들은 6.25 동란 때 다리를 잃어버린 몸이었기에, 그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지금껏 허름한 무허가 식당을 차려 종업원 한 명도 두지 못하고 혼자 일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좀 전에 말다툼을 한 일본인은 야마모토라고 하는데, 최영감이 강제 징용되어 노역을 하던 M탄광의 경비주임을 했던 사람으로 해방 후에는 세무원이 되어 최영감의 탁주 밀조를 비호해 주는 척 은혜(?)를 베풀어 오더니, 어느 사이에 이를 꼬투리 삼아 돈을 뜯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최영감은 일본인이 ‘지난날 한 일을 뉘우친다면, 우릴 이렇게 업수이 여길 수는 없다. 지금 지나간 얘기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힐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얼마 후에 마산관이 자리 잡은 음식점 거리는 철거 대상이 되고, 너물

을 받아먹은 일 때문에 세무서를 쫓겨난 야마모토는 다시 철거민과 당국과의 중재를 자임하는 거간꾼으로 나타나 ‘철거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시세보다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온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의 무허가 가게들이 하나 둘 헐리게 되자 철거는 이미 피하기 힘든 방향으로 기정사실화 된다. 이에 최영감은 어쩔 수 없이 야마모토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결국 철거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만다. 아니나 다를까 야마모토는 중간에서 차액을 챙기는 간계를 발휘했던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최영감은 딴 곳으로 옮겨가기 전날 ‘나’를 만나 야마모토에게 속은 사정을 전하면서, ‘일본 계집을 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밤낮 속아 살게 될 것’이라 진심어린 충고를 한다. 이후 ‘나’는 미요와 헤어지고, 그전까지 그리던 추상화를 그만두고 사실적 그림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탈피’, 즉 허물벗기라는 제목은 주인공인 ‘나’의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나’는 최영감과 만나 그의 신산한 삶의 역정과 끝나지 않는 일본인과의 갈등, 벗어날 수 없는 떠돌이 신세를 알게 되면서, 무기력하고 현실에 무관심한 ‘보헤미언’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에 관심을 돌리는 변화를 보인다. 식민지배가 끝난 시점에서조차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동경의 판자촌을 떠돌며 일본인과 상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재일한인의 애환과, 이로부터의 허물벗기를 일상의 변환에서 찾고자 하는 ‘나’와 최영감의 다짐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인과의 악연이 해소될 때 나의 진정한 탈피가 가능할 것인데, 그것은 ‘또다시 고향(고국)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다. 이를테면 떠돌이에서 탈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소망 즉 자기 스스로의 변신을 위한 허물벗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그 계기를 망향의 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부처>¹⁸⁾는 재일한인에게 함부로 도둑 누명을 씌우는 일본 유력인사의 횡포,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의 불법 부당한 권력행사와 차별 등으로

18) 『한양』, 1962년 7월호(175~187쪽)에 수록된 김철수의 소설 작품이다.

인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투리마저 빼앗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정필근은 고학으로 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그의 아버지는 징용 때 희생된 사람이다. 필근 모자가 얻어 들어 살고 있는 집은 다무라 저택의 경비초소로 사용됐던 판자집이다. 다무라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고위관료를 지냈던 사람의 아들로써 전철회사의 중역이자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로 행세하는 인물이다. 그의 아버가 한국에서 가져나온 금부처(순금 관음상)는 이 집의 늙은 마님(다무라의 어머니)이 애지중지하는 보물이다. 필근은 주위 사람의 부탁으로 마취주사를 두려워 해 병원가기를 거부하는 그 집 늙은 마님의 상한 이를 뽑아주기로 했다. 약속 날짜에 안체에 들어가 말로만 듣던 금부처를 본 그는 자기와 국적을 함께하는 그 보물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고 일순간 상념에 잠기기도 하면서 이를 뽑고 나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 집의 금부처가 없어진 사실이 발견되고 뒤이어 필근이 절도 용의자로 잡혀가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당시 다무라 저택에는 필근 외에도 외부인이 드나들었는데, 필근이 유력한 용의자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필근이 재일한인이기 때문이었다. 원래 경찰서에서는 검속 대비 무죄 비율이 높을수록 업무평가 성적이 떨어지는 법이나,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그 통계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일단 체포부터 했던 것이다. 필근을 추궁해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자, 경찰은 그의 어머니까지 검속하는 등으로 사건은 장기화되고, 필근은 구속 2주를 넘기면서 계속 취조를 받게 된다.

문제의 금부처는 사실 고등학생인 주인집 아들 아끼라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 유흥비로 날린 것이었는데, 이 사실은 가정부가 뒤늦게 전당포 영수증을 발견함으로써 이 집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임을 알게 된다. 주인 부부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정부 처녀에게

입막음을 다짐하고, 경찰에는 ‘누군가 도둑이 도로 갖다놓았다’고 거짓으로 수습을 했다. 그러나 뒤이어 아들의 패륜 행각이 학교 측에도 발각되면서, 그 비용의 출처를 캐는 과정에서 금부처 절도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주인집에서는 경찰서 간부들을 잘 대접한 후, ‘이미 금부처도 찾았으니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필근을 빨리 석방해 달라’고 부탁하며 일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의 처사는 사뭇 달랐다. 자신들의 과오와 횡포를 노출하기 싫은 그들로서는 정필근을 석방하지 않고 다른 구실을 찾아 관용을 베푸는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한국 청년 때문에 일본 경찰의 체면을 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서에서는 정필근에게 절도를 인정하는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필근에게는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수용소(오무라)로 추방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한다.

유치장에 억류된 상태가 길어지면서 정필근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각기병 증세까지 보이자, 사건 처리의 지지부진에 부담을 느낀 경찰서에서는 필근의 모친을 회유하여 병보석 신청을 하게 해 그 명목으로 필근을 내보낸다. ‘성한 다리로 걸어 들어갔던 정필근은 꼬부라진 늙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멀쩡하던 필근이 병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무라 일가는 그들이 얻어들어 살던 집을 당장 비우라며 내쫓고 만다. 이리하여 필근 모자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필근의 누이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 무작정 그곳을 향해 떠나는 신세가 된다.

이처럼 두 작품은 재일 한인이 겪는 생활고와 차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거나 쫓겨 다녀야 했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힘든 현실 속에서 귀향은 재일 동포 1세대의 궁극적 꿈이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차별과 박해의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 남은 생애를 마치고 조상의 묘역에 뼈를 묻는 일이었다. 이들에

게 고향은 낯선 타국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원천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고통을 견뎌내었다. 특히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강제로 징용 징집되어 끌려온 사람들이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고, 종전 후에도 귀국이 쉽지 않았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해져만 갔던 것이다.

2. 생존공간으로서의 일본, 그 끝없는 도전

고통과 차별의 땅,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를 뿐이라 생각했던 땅 일본이다. 그 일본에서 한 밭천 잡아 고향으로 돌아 가리라던 다짐은 어디까지나 다짐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예전의 고향이 아니고 오히려 궁핍과 상실감을 더해주는 땅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다. 고향이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 이제 그들은 일본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일본은 분명 수난의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에 인연을 맺고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해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각색의 탐색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재일한인 소설은 생존을 탐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일본 땅을 그려보기도 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鄭承博의 <통나무 다리>와 <쓰레기 처리장>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두 소설은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 이방인 소년 내지는 고향이 없는 떠돌이 일용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이 힘든 삶을 꾸려가면서도 그 고난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통나무 다리 너머의 단절된 공간에 내포된 열림의 가능성,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비루한 공간에 내포된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통나무 다리>¹⁹⁾의 주인공 장일은 10살 남짓의 보통학교 3학년 학생

19) 『삼천리』, 1979년 여름 동권 18호(238~252쪽)에 수록된 정승박의 소설 작품이다.

이다. 그는 집안이 빚으로 파산한 후에 학교마저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자, 부모 몰래 소를 팔아 여비를 마련하여 숙부가 있는 일본으로 무작정 건너간다. 일본에서 숙부는 산속 마을 터널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숙부는 ‘공사가 끝나면 목돈이 들어올 테니 내년부터 학교를 보내 주마’고 약속한다. 이에 장일은 숙부가 일하는 공사장 숙소에서 5명 인부의 취사를 돕거나 잔심부름을 하며 지내게 된다.

어느 날 열병에 걸려 앓고 있던 인부 마쓰야마²⁰⁾가 ‘김치를 먹고 싶다’고 하자, 장일은 인근 마을의 채소밭에서 배추를 훔치고, 낮선 집 뒷마당에서 마늘과 고추를 훔쳐다 김치를 담근다. 김치를 실컷 먹은 탓인지 마쓰야마는 열병에서 깨어난다. 며칠 후에 장일은 채소 도둑으로 잡혀 주인에게 끌려가지만, 일본 왕실의 하녀 출신이라는 기이한 운명의 소유자로서 이곳에 은거하여 살고 있는 주인아주머니는 어린 장일에게 선처를 베푼다. 이후 장일은 종종 그 아주머니를 찾아 일본어를 배우는 가 하는 등으로 친분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쓰야마가 마을의 개울에 공사용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은어를 잡다가 마을 사람들의 고발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다. 마쓰야마가 체포되면 불법어로 죄와 폭발물 남용 죄로 중벌을 받을 것이며, 공사 일정 역시 차질이 생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삼촌의 소리를 장일이 듣게 된다. 이 모습을 보고 장일은 마쓰야마 대신에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수하기로 결심한다.

현장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아이의 소행이 아님을 의심한 경찰은 취조 도중에 갖은 협박과 구타를 가하지만 장일은 끝내 자신이 한 일임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감옥에 갇힌다. 며칠 후, 전부터 장일을 돌봐 주던 일본인 아주머니의 신원 보증 덕분에 겨우 석방이 되는데, 아주머니는 마을로 들어가는 통나무 다리 위에서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

20) 일본식 이름의 소유자이나 그는 분명 조선인이다. 당시 재일한인 모두가 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도 비뚤어지지 말라며 장일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통나무 다리’는 이 작품에서 공간의 구획과 연결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소년이 찾아가는 산속 마을은 철저하게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다. 소설 서두에서 지루하게 그려지는 소년의 일본 행 여정 -관부 연락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승합차를 타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 20여 리나 되는 산길을 걷는 등의 과정은 소년이 찾아가는 산 속 마을이 일상적 삶과는 격절된 미지의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긴 여정을 거치는 내내, 그리고 산속 마을에 도착해서도 소년은 계속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승합차 속 승객은 소년의 지저분한 모습을 트집 잡으며 조선에 대해 터무니없는 욕을 한다. 골짜기에 도착해 숙부가 있는 숙소로 가는 길을 마을 아이들에게 물어 봤을 때 아이들은 장일을 피하며 모른다는 대답을 반복할 뿐이었다. 채소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을 때는 마을 아이들이 더럽다며 장일에게 돌을 던지면서, 마치 침입자를 응징하듯 자기들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려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일은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 없이 현실에 부딪치면서 소통과 교류를 시도한다. 숙부의 숙소를 찾아가면서 서툰 일본어로나마 길을 묻고,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이 사람들의 트집거리가 된다는 생각에 얼굴을 깨끗이 씻기도 한다. 앓아 누운 인부를 위해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가 김칫거리를 구해오며, 일본 아주머니 집을 오가면서 일도 도와주고 일본어를 배우기도 한다. 소년은 공사장 인부 대신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이는 강요에 따른 약자의 억울한 누명이 아니었다. ‘공사가 빨리 끝나야 학비를 벌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자발적 희생이었다. 그러기에 장일은 감옥 생활조차 ‘의외로 시원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통나무 다리>는 다리 아래의 강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장일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다. 처음 숙부를 찾아갈 때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고, 공사장 인부의 불법 어로 죄를 자

청하여 대신 지수를 했을 때는 ‘덥수룩한 머리’와 ‘주름투성이 학생복’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산속 마을로 돌아올 때 장일은 강물에서 더 이상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를 돌봐 주고 격려하는 아주머니의 하이쿠 구절과 더불어, 강물 위로는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는 곧 통나무 다리 너머의 고립된 산속 공간이 이제는 분리되고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생존의 꿈을 향한 열린 공간, 그곳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의 끝없는 도전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 하겠다.

<쓰레기 처리장>²¹⁾은 일용노무자의 떠돌이적 삶에 얽힌 애환을 그리고 있는 정승박의 소설작품이다. 고오베의 노동자 합숙소에서 날품팔이 생활을 하는 마쓰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도시를 찾아가던 중, 전쟁 전에 로구로 선반 기능공으로 잠시 머문 적이 있었던 이카이노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마쓰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 방도를 찾는다는 점에서 <통나무다리>의 장일과 닮았다.

마쓰다는 이카이노의 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다가, 우연히 식당 주인 노파와 말을 나누게 되고, 그 노파의 소개로 자신과 같은 안동 권씨인 가네하라와도 인사를 나누게 된다. 마쓰다는 노파를 어머니처럼 느끼고, 가네무라 또한 친척이라는 점만으로도 무언가 가까운 사이임을 느끼며 그의 존재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아 전전하지 않고 이카이노에서 일거리를 구하고자 한다.

공원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끼어들어 ‘일거리를 찾고 있다’며 자기를 소개하자, 한 여자가 일거리를 주겠다고 그를 데려간다. 그 일이란, 쓰레기통 위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파친코 경품권을 가져 오면 그것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일이었다. 파친코 경품권 구매 조직²²⁾의 두목격인 산지라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 이후, 비록 불법이기는

21) 『삼천리』, 1976년 여름 통권 6호(190~217쪽)에 실린 정승박의 소설 작품이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파친코 경품권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돈을 만지게 되자 그는 작은 선반공장을 운영하는 가네하라도 짬짬이 만나면서, 자신의 선반 기술을 살려 언젠가는 스스로 공장을 운영하리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경품권 조직의 두목인 산지가 찾아와 ‘조만간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것인데, 우리 조직원 중에서 몇 명 검거돼 주어야 한다’며 마쓰다에게 작전상 체포 투옥될 것을 부탁한다. 그 대가로 ‘평소 수입보다 훨씬 높은 일당을 쳐 주겠다’는 말에 마쓰다는 흔쾌히 수락하고 잡혀가게 된다. 하지만, 그가 체포된 이후에 산지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고, 보름 동안의 유치장 신세 후에 석방되어 나왔을 때는 이미 파친코 경품 구매 조직은 해산을 한 상태였다.

마쓰다는 이참에 다시 자신의 선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삼화금속공업소’라는 공장의 선반 기술자 야나가와에게 자신을 한 팀으로 뽑아달라고 부탁한다. 그 공장에서 한동안 함께 일을 했으나, 자동기계의 확산으로 선반기술자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결국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 마쓰다는 가네하라를 찾아가 자동기계를 구입할 자본을 구할 길을 찾아볼 테니 같이 일을 하자고 한다. 이에 마쓰다는 어느새 사채업자로 변신한 산지를 소개해주고, 가네하라는 산지에게서 앞으로 구입할 기계를 담보로 기계 구입 자금을 빌린다. 직장을 잃은 야나가와도 함께 데려와 그들은 새 공장을 운영할 꿈에 부푼다. 그러나 자동기계를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네하라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게 된다. 그들은 가네하라의 행방을 찾던 중, 하청을 주던 업체에서 하청을 이미 끊었다는 사실을 듣는다. 설상가상으로 시청 철거 담당 공무원이 나와, 가네하라의 공장은 쓰레기장 처리장에 세운 불법 건물이라며 철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다. 공무원이 떠나간 후, 마쓰다는 다시 가네하라를 찾다가 우연히 공구점 앞을 지나가게 되고, 나무에 구멍을 뚫는

22) 파친코 경품권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은 원래 불법 행위이다.

편치 기계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마쓰다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했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들었다. 터벅 터벅 따라오는 야나가와와 스기사카에게 ‘어이, 지금부터 날품팔이를 시작하자. 돈을 모으자. 공장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하청 주는 공장이 필요 없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직접 팔자’라고 말하자 스기사카가 ‘다 꿈같다. 그보다 공장이 부서지면 우린 잘 곳도 없어’라고 했다. 야나가와도 장단을 맞추며 ‘나는 하루도 놀 수 없어. 먹고 살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내일부터라도 날품팔이에 데리고 가줘.’라고 말했다. 마쓰다는 몹시 짜증이 났다. ‘뭘라는 거야. 하청 주는 공장에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은 안 돼. 성냥갑이라도 좋아. 부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팔러 가자. 공장 정도는 곧 어딘가 좋은 쓰레기장을 찾아 멋지게 짓자.’ 이렇게 말했다. 양쪽에 늘어진 가게를 보면서 걷고 있으니 공장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것같은 상품이 눈에 띄었다. 냉방 완비라고 표찰이 붙어 있는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면서, 마쓰다는 큰 야심이 생겨났다. 언젠가 분명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강렬히 들었다.(216~217쪽).²³⁾

마쓰다는 쉽사리 좌절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23) 松田は何かを大きく間違えた気がしてならなかった。とぼとぼとついてくる柳川と杉阪に、「おい、これからニコヨンを始めよう。お金を溜めるんや。工場を作って、こんどは親工場の要らない自分で作った品物を、自分で賣り出そう」というと杉阪が、「みんな夢みたいな。そんなことより工場潰されたら、わいら寝るとこもあらへん」という。柳川もこれに調子を會わせていた。「わいかて一日も遊んでいられへん。食えたら何でもええね。明日からでも仕事に連れて行ってや」といって俯く。松田はむしゃくしゃしてきた。「何を言うてんね。親工場に命を握られたような職はあかん。マッチ箱でもええね。部品ではなく製品を作って賣りに行くんや。工場ぐらい、そのうちに何處かで、ええゴミ捨て場見つけたら、きれいに均して建てたるわい」といってしまった。兩側に並んで店先を見ながら歩いていると、工場さえあれば、わけなく作れそうな商品がいくらか目につく。冷房完備の札が出ている喫茶店へ入って、コーヒーを飲んで戻ったが、松田はむやみに野心が湧いてくる。いつかはきっと、自分にも何かが出來そうに思えてならなかった。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려 한다. 결국 가네하라는 자살을 하고 공장이 있던 쓰레기 처리장에서 영결식을 갖게 된다. 가네하라의 영결식을 지내면서 마쓰다는 ‘결코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쓰레기 처리장’은 바로 재일 한인의 삶의 공간이다. 가장 밑바닥 상황에서 비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한다. 쓰레기 처리장은 폐기된 존재들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작가는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IV. 가족 이산의 아픔과 재결합의 꿈

일본으로의 이주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수반한다. 강제동원이든 자의적 도일이든 그 과정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재일한인의 꿈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주인노릇하며 사는 것이었다. 재일 1세의 이와 같은 목표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든 꿈으로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비록 그 강도는 다르나 2세와 3세, 그리고 4세, 5세에 이르도록 면면히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⁴⁾ 이러한 현실을 그리는 소설은 많이 찾을 수 있다. 가족이산의 아픔과 그리움, 귀향과 재회의 꿈이 무산된 현실 등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대 간을 넘나드는 아픔의 공유 그리고 아픔의 극복을 통한 재결합의 소망을

24) 재일동포 2세 가수 新井英一의 ‘청하 가는 길’은 이러한 사연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비록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아버지의 고향이 한국의 땅 경북 청하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귀화 여부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여긴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자신의 조국은 한국이며 그의 아버지는 그 옛날 바다를 건너온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현홍의 앞 논문(2003.8.), 100~102쪽을 참조.

그런 경우도 있다. 이순학의 <哭>, 김경식의 <落日>, 김철수의 <아버지와 아들> 등이 전자의 예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이상직의 <장마철>, 원수일의 <제주의 여름>, 이정순의 <우리집 삼대> 등은 후자의 예이다. 여기서는 <哭>, <아버지와 아들>, <落日>, <장마철>, <제주의 여름>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가족의 결별과 비탄 통곡의 현실

<哭>²⁵⁾은 일본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혼란의 와중에서 불귀의 객으로 희생되고 만 강제 징용자의 비극적인 종말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린 소설이다. 해방 직후 일본 탄광에서 노역을 하던 한국인 노무자들은 뒤늦게 해방 소식을 듣고 귀환의 희망에 부풀게 된다. 하지만, 강제노역장 자체가 워낙 격절된 공간인지라 귀환 조치는 아랑곳없이 일본인들은 무장을 강화하고, 한국인을 경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었으며, 강제 노역 역시 쉽사리 중지되지 않았다.

징용의 서슬이 시퍼렷던 당시에 최삼손은 부친과 함께 끌려와 자기 다른 탄광으로 보내져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들은 그는 부친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희망에 들떠 부친이 억류되어 있는 탄광의 소식에 귀를 곤두세우면서도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한편, 부친 최수근은 S탄광에서도 망쳐 아들을 찾아왔다가 관리자인 오오따에게 체포된다. 오오따는 최수근을 탄광으로 다시 압송할 거라고 했으나 다른 노무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두려워 그를 후쿠오카 유치장으로 보내버린다. 오오따는 최삼손에게도 갖은 폭행을 가한 후에 그를 탄광에서 추방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에 삼손은 자신을 추방한 내막을 의심하고 밤을 틈타 몰래 탄광 숙소로 되돌아온다.

그날 밤 최수근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다시 삼손을 찾아와서는 강제노

25) 『한양』, 1966년 10월호(233~245쪽)에 실린 李淳鶴의 소설 작품이다.

역 중지 사실과 함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린다. 이 소식에 최삼손은 다음날 새벽 부친과 함께 고향으로 떠날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출발을 하려는 차에 오오따가 경비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이들은 강제 노역이 이제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근은 다시 압송됨으로써 또다시 삼손과 헤어지게 된다.

“오오따는 저희들이 8.15후 계속해서 한국인 노무자를 강제로 일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8.15의 사실을 시인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현재도 그 옛날처럼 일본 제국은 건재하고 미영에 대해서 싸우고 있으며 따라서 탄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만 만족한 것이었다.”(241쪽)

얼마 안 있어 주변 정세가 급변하자 삼손을 비롯한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풀려나게 된다. 삼손은 고향으로 가는 배를 구하고, 다시 오오타에게 가서 아버지의 행방을 물으니, 그는 ‘하카타에서 배를 잡아 수근을 귀국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삼손은 오오타의 말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귀국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행방이 묘연했다. 이후 여러 해가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결국 최수근의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는 비극에 빠져든다.

<아버지와 아들>²⁶⁾은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밀항해 온 아들이 억울한 사건으로 강제송환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린 소설이다. 박대환은 해방 후 귀국했으나 가족들의 생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이다. 품팔이로 전전하면서도, ‘목돈을 쥐면 바로 돌아가려’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10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던 차에 고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들 명호가 어머니와 의논도 없이 몰래 배를 구해 타고 소위 밀항을 해서 불쑥

26) 『한양』, 1962년 4월호(181~193쪽)에 실린 김철수의 작품이다.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다.

박대환은 동향인인 파친코 가게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의 점원으로 그를 취직시킨다. 명호는 유기점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아 고향에 있는 연인 옥순에게 내복 선물을 하려 한다. 파친코 가게와 인근의 술집에서 가끔 만나는 일본인 건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길거리에서 의류 등을 팔기도 했다. 그들에게 여자 내복 하나를 싸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복을 건네받으려 술을 한잔 나누다가 시비가 벌어져 급기야 주먹다짐을 하고 도망치다 붙들리게 된다. 건달들은 그에게 내복을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 경찰을 불러들이니 명호는 폭행, 절도에 밀항 사실까지 드러나 범법자로 구속된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던 박대환은 뒤늦게 형사의 방문을 받고 취조실로 아들을 만나러 간다. 명호는 도둑질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박대환 역시 명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형사는 ‘남의 나라에 밀항해 와서 상해절도죄까지 저질렀으니 징역을 살다가 송환할 수밖에 없다’며 꾸짖었다.

“남의 나라에 밀항하였는 것만도 큰 죄대 도적질을 한다. 사람을 친다하니 이건 일본 사람을 어떻게 알고 하는 것들이냐 응?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니야. 북선패들은 마치 자기 나라이기나 한 것처럼 떠돌고 있고 남선놈들은 남선놈들 대로 이렇고. 인젠 용서가 없어 징역을 살다가 송환이다 송환이야(중략) 이놈의 세상은 언제가야 밝은 날을 볼 수 있단 말이냐. 팔자가 기박해서 아들 하나도 옳게 키우지 못한단 말인가. 뒷하러 자기 고향서 살지 못하고 산지사방에 발아 떠나서 이 꼴이냐 말이다. 애 명호야!”(193쪽)

결국 명호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박대환은 취조실에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비통한 한탄을 내뱉을 뿐이다.

<落日>²⁷⁾은 재일한인 떠돌이 화가의 일본인 처 도키코가 행방불명된 남편의 행적을 찾는 데서 사건이 시작된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남편

병순은 매우 과묵한 성격으로 평소에도 가끔 며칠씩 집을 비우곤 하였는데, 그런 남편이 이번에는 1년이 넘게 돌아오지 않자, 부인 도키코는 기다리다 못해 남편의 지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인 영희와 철수를 찾아다니며 병순의 행방을 탐문한다. 그 과정에서 도키코는 지인들로부터 남편 병순의 삶의 편린들을 전해 듣고서 처음으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겪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운명을 깨닫게 된다. 지금 그들의 가정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결별의 아픔도 근본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뿌리 뽑힌 삶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로소 짐작하게 된다.

도키코는 먼저 영희를 만나 병순이 원래는 일본유학생이었는데 강제 징용을 피해 고향으로 도피했던 일이 있었던 사실과 함께, 몇 년 후 긴 자에서 다시 우연히 병순을 만난 이야기를 듣는다. 도키코가 징병과 징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자 영희는 결국 설명 끝에 당시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소와 개 모양으로 부려먹었다며 흥분을 하게 된다.

“그럼 그 때 한국 사람도 많이 일본 군대에 징병당한 것도 모른단 말이요, 그 뿐 아니라 징용이다 뭐다 하며 수십 만명을 강제로 데려다가 소와 개 모양으로 부려먹던 것을……’ 영희는 왜 이렇게 성을 내서 도키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축스럽게 생각되어 도중에서 끊었다. 그리고 곧 자기의 말이 성급한 것이라고 깨닫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하고, 도키코를 쳐다보고 웃었다.”(315쪽)

영희에게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도키코는 다른 지인 철수를 찾아간다. 철수에게서 병순이 고향으로 도망쳤다가 해방 후 다시 일본으로 밀항해 건너왔으며, 바로 체포되어 강제 송환 당했다는 이야기, 병순이 다시 부산에서 밀항 준비를 하다 철수를 만나 밀항해 왔고 외국인 등록을 할 자격이 없기에 위조 등록을 가지고 지금껏 지냈다는 이야기, 이번

27) 『한양』, 1966년 4월호(310~318쪽)에 수록된 金慶植의 소설 작품이다.

에 위조등록이 발각되어 지명수배를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밀항을 해서 현재 철수가 운영하는 서울 회사 쪽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도키코는 다시 영희를 만나 자기는 여지껏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다고 털어 놓는다. 자신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이 그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작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만을 바라는 동안, 병순은 자기에게도 말 못할 고뇌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도 재일한인의 차별상을 전혀 알지 못한 도키코는 이제야 남편이 처한 현실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하나, 다시 남편을 만날 방도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우리민족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그 흔적으로 짙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지금껏 살펴보았듯 <곡><아버지와 아들><낙일>은 모두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와 그 이후 재일한인이 겪게 된 차별로 인해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이들은 혈육과의 이별이라는 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 소설은 비탄, 악몽과 통곡, 자포자기로 끝을 맺고 있다.

2. 아픔의 공유와 재결합의 꿈

<장마철>²⁸⁾은 장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오사카의 만국박람회장을 찾게 된 기철이 그곳에서 한 한국 노인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소설이다. 기철은 아들을 잃고 고향에서 외로이 사는 장인을 일본으로 초청한다. 장인과의 첫 만남인 만큼 박람회 구경도 시켜드리고 환갑 잔치상을 마련해드리고자 하는 아내의 간청에 따라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냈다. 이리하여 기철의 장인도 오사카

28) 『한양』, 1971년 신년호(142~155쪽)에 실린 李相稷의 소설 작품이다.

만국박람회 구경도 할 겸, 일본으로 딸네를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보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만국박람회가 개최되고 시일이 꽤나 흘러도 장인이 도착한다는 연락은 없고, 여행사나 민단에서도 뽀족한 답을 알려주지 못했다. 이에 기철의 아내는 남편에게 만국박람회장에 가서 직접 한국 여행단을 만나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라고 졸라댄다. 기철은 아들 종수를 데리고 만박 회장에를 가기는 했으나 한국여행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종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기철이 아들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다 우연히 한 한국 노인을 보게 되어 가까이 다가가니 마침 종수도 그 노인 옆에 앉아서 신기한 듯 담뱃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기회로 기철과 노인은 서로의 사연을 주고받게 된다. 노인은 기철의 사연을 듣고 '일정이 바뀌는 일이 무척 빈번하니 기다리면 올 기요'라고 굳이 믿는 것처럼 말을 했다. 다른 근거는 없었지만, 노인의 소박하고도 확신어린 말에 기철은 마음을 놓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어 노인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철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의 동생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간 후로 종적이 묘연해지고, 6·25때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다리를 다치게 된다. 게다가 가뜩이나 불구의 몸인 둘째 아들을 두고 '일찍 제대를 하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쏘았다'는 헛소문이 돌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버린다. 시간이 흐르자 '부산에서 그를 봤다'는 소문과, '삼촌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을 거'란 소문이 들려올 뿐이었다. 노인은 만국박람회 관광을 기회로 아들의 소식이나마 들을까 하여 일본을 방문하긴 했지만 사실상 아들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함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란 믿음만은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 기철도 노인이 '꼭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간절히 위로했다. 노인은 종수에게 용돈을 주고, 이에 기철은 담배 몇 갑을 사서 노인에게 선물로 드린다. 기철은 종수에게 '할아버지께 인

사를 드러라'고 시키고, 노인은 기철에게 '우리 씨를 잘 키우소'라는 부탁을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이산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월남전에서 아들을 잃고, 피붙이 없는 며느리와 밭을 일구며 사는 기철의 장인에게 있어서 일본의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자는 마지막 남은 핏줄이다. 그런 친정아비를 만나고자 하는 기철 일가의 기대와 아픔이, 6·25에 큰아들을 잃고, 둘째는 불구가 되어 행방을 감춰버린 상태의 노인의 아픔과 중첩되면서 서로에게 위안을 전내고 있다. 이들은 아직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에게 언젠가는 꼭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동병상련의 고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제주의 여름>²⁹⁾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남 1녀의 가족으로 구성된 제주도 출신 가정의 망향에 얽힌 사연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 '아루'는 삼 남매 중의 막내아들이다. 이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아루의 만형인 '바람'이 고베 대지진으로 애인인 미나 씨를 잃고 나서부터이다. 바람은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혼자 제주도로 떠나버린다. 평소 바람 형을 무척 따랐던 '수나' 누나는 바람 형이 제주도로 떠나버린 후, 바람 형을 내내 기다리다가 오빠를 만나러 제주도로 가고 싶어 한다. 수나 누나에게는 원래 사귀던 나오키 형이 있었는데, 고베 대지진 피해현장 자원봉사자로 나선 수나와의 동참 여부로 다투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수나는 나오키 대신 제주도에 왔다는 유학생 진일과 사귀면서 아버지에게 '새 애인과 제주도에 다녀오겠다'는 말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 되어 꿈에 고향 제주도가 계속 보인다'며 '죽기 전에 고향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재촉한다. 아루는 바람 형의 안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수나 누나나 할머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

29) 『청구』, 1995년 여름 통권 24호(196~215쪽)에 실린 元秀-의 소설 작품이다.

았다. 수나 누나가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연애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일 뿐이고, 할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아루에게 고향은 일본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누나는 진일이 여자 친구와 노닥거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술을 퍼마시고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오겠다’고 선언한다. 할머니와 동행하겠다는 말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자, 수나 누나는 결국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귀국 예정일이 되어서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빠,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좀 더 머물겠다’는 통고를 해온다. 이 소식을 들은 아루의 부모는 아들, 딸과 노모가 걱정이 되나 제주도에 갈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하는데, 이 틈을 타서 아루는 부모의 사자 역을 자임하며 제주도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삼 남매는 제주도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아루는 다른 가족들의 아픔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다. 먼저, 할머니가 고향을 다시 찾아 기뻐하시면서 회상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할머니를 과연 다시 일본으로 모시고 가도 되는 것일까, 그건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다음, 바람 형이 밤하늘의 불꽃을 보며 너무나 빨리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존재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존재가 예고도 없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사라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도 함께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수나 누나가 바람 형이 ‘다시 제주도를 떠나 다른 어디엔가로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가족이 흩어지는 처지에 담긴 아픔을 느끼며 감상에 빠져든다.

제주도를 떠나기 하루 전 이별을 앞두고, 이들 가족은 모두 원씨 집안 가족 묘소 예정지를 방문한다. 그곳은 무궁화가 잔뜩 피어있는 완만한 구릉이었다. 바람 형은 수나 누나의 이름인 ‘수나’는 원래 무궁화를 의미하는 ‘舜花’에서 온 말이라며, 수나가 자기 옆에 없어도 자기 곁엔 항상

수나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동생을 위로한다. 수나 누나는 지금은 헤어지지만 가족 묘지가 완성될 때는 꼭 다시 모여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고, 바람 형도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오백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풀밭에 누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루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의 헤어짐을 앞두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만난 네 가족이 비록 다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다. 잠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의 이별이기는 해도, 그들은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고 아픔을 공감한 상태이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서로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바를 찾을 뿐인 것이다. 다음날 바람 형은 다시 제주도를 떠나고, 할머니, 수나, 아루는 비행기를 탄다. 아루는 집안 묘소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꼭 가족들 모두와 함께 제주도로 오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제주의 여름>은 저마다 다른 상실과 아픔을 지닌 가족이 차례로 고향땅 제주도에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그림으로써 이산의 아픔이 공유 확산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V. 소속·안정의 욕구, 그 억압 현실과 좌표 설정의 고뇌

재일한인 소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의식은 바로 ‘재일한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데 대한 물음이다. 윤건차의 논의에 따르면, ‘재일’은 ‘한 사람의 인간 속에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가나 민족, 출신이나 언어, 습관이나 문화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것³⁰⁾이다. 그런데 재일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재일’은 존재하는 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³¹⁾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경까지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민족에 근거를 두었다면, 70년대 후반부터는 1세에서 2세·3세로의 세대교체를 배경으로 재일 조선인 젊은 세대가 스스로의 주체를 표현하는 호칭이자 기존의 ‘조국’ 지향적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표현으로서 ‘재일로 산다’는 주장을 전개했다.³²⁾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위의 논의는 상당 정도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와 같은 틀을 전제로 재일한인 수필에 내포된 의미를 나누어 살핀 바 있다. 정체성 문제에 관한 한 수필은 담론적 성격을 비교적 뚜렷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소설의 경우를 이처럼 재단하기에는 그 담론적 성격의 차이 때문인지 실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여기서는 소속 안정 욕구의 억압 현실과 좌표설정

30)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 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97쪽.

31) 이에 대해 윤건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일’은 역사의 한 토막(장면)이다. 당연히 ‘재일’을 어떻게 정의할 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절대적인 조선인도, 절대적인 일본인도, 절대적인 재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자기도 변화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성도 변해 간다. 국가의 틀이나 남북한의 통일 등, 정치, 그리고 경제의 변동에 의해서도 변화해 간다. 문제는 특정시대, 특정 조건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재일’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쟁취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길을 확보해 가는가이다.”(윤건차, 위의 논문, 312쪽)

32)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295쪽. ‘재일’ 아이덴티티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양』과 『삼천리』에 나타나는 수필들의 정체성 모색 문제와 상당히 일치한다. 『한양』에 수록된 정체성 관련 수필은 그 대부분이 60년대에 나온 작품이었으며, 내용 면에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당연한 전제로 설정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한편, 1975년 봄에 창간된 『삼천리』는 재일2·3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려낸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홍, 앞의 논문(2006.4), 337~352쪽을 참조.

고뇌리는 범주를 설정하고, 그 소설적 전개양상을 둘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김경식의 <地圖>와 <螳螂의 傳說>, 정철의 <石燈>, 김철수의 <望鄉> 등은 민족의식의 당위적 주장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김학영의 <산밭의 마을>, <얼뜨기>, 고사명의 <邂逅>, 김석범의 <소나기> 등은 허공에 뜬 존재의 뿌리찾기와 재일의 자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여기서는 <석등>, <망향>, <지도>, <산밭의 마을>, <해후>, <소나기> 등을 분석할 것이다.

1. 민족의식의 당위적 주장과 그 한계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재일한인 수필의 형상과 의미를 그들의 에스닉 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 중에서 『한양』에 수록된 수필은 재일한인의 주체의식·민족적 정체성의 자각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들 수필에서 재일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해간다. 민족을 혈연적 공동성을 전제로 하여 언어, 종교, 도덕, 생활양식, 풍속 및 관습 등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의식 내지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때, 『한양』 소재 수필은 살고 있는 곳과는 상관없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견을 강하게 펼친다. 이러한 특징은 소설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양』에 수록된 소설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그러한 의식을 지니지 못한 경우를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그리고 있다.

<石燈>³³⁾의 주인공 남시언의 홀어머니는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인 선교사 반필드 박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반필드는 어느 미국인 부호의 기부금으로 기숙사 등의 크고 작은 회관을 지어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신분인데, 그는 유력 장학재단에 많은 연결고리를 지님으로써 일본인 학생들의 미국 유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남

33) 『한양』, 1967년 2월호(203~211쪽)에 실린 丁徹의 소설 작품이다.

시언은 의대생으로, 졸업을 하면 곧바로 보건 기관에 취직해 어머니를 봉양할 뜻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반필드 박사는 남시언에게 미국 유학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다. 이는 물론 남시언을 위한 배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시언이 졸업하고 독립하게 되면 싼 월급에 가정부로 채용하고 있는 남시언의 모친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묻어 있는 제안이기도 했다. 반필드는 학비는 대어 줄 수 있으나 여비는 남시언이 부담해야 하며, 이와 함께 남시언이 일본인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다. 이 조건이 붙은 까닭은 장학회 이사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반필드와 남시언이 나눈 대화를 보자.

“너희들은 번쩍하면 민족이니 조국이니 잘 하는데 나 보기에는 후진국 청년들의 공통한 일종의 센터멘탈 같다.(중략) 시언은 밤 깊은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무엇인가 그리움과, 일싸안고 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저 조국을 그리며 한 조상의 같은 자손들과 고향을 함께 하려는 것이 과연 한낱 부질없는 감상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빙설 같은 맑고 매운 절개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그것 없는 세상도 세상이며 문명한 나라. 우월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더 형제를 찾고 좀더 민족을 말해야 한다!” (211쪽)

남시언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조국이지만, 일본과는 달리 ‘우리를 따듯한 손길로 쓰다듬어 줄 어머니 같은 나라’로 떠올리며 미국 유학을 위해 “그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땅, 나의 모국을 배반하여 옳단 말인가? 조국이란 그렇게 어느 외국구경이나 외국학위와 바뀌도 좋은 헐값의 것일까?(208쪽)”라고 반문하면서 고민한다. 한편 반필드는 여비를 장만할 길이 없는 남시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목사의 집에 일본 석등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름난 석등이 있는데, 이것을 아르헨티나에 있는 日本人會에서 전시 목적으로 가져가려는 제의가 왔으며, 보증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테니 그 돈을 여비로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리

하여 아르헨티나로 옮겨 가기 전에 석등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파견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의 감정 결과 그 석등은 일본 석등이 아니라 한국의 석등임이 밝혀진다. 이 사실을 들은 남시언은 석등을 보면서 ‘옷을 함께 걸치는 듯한 따스함과 속삭임’을 느끼고 고민 끝에 결국 귀화를 거절하게 된다. 그는 반펠드에게 조국은 부모나 마찬가지로 지이며 귀화는 곧 매국노나 다름없음을 역설하고 귀화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자리를 일어선다.

<望郷>³⁴⁾은 민족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현실과 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적 자존심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김영만은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친은 고향에서의 수탈을 견딜 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왔다. 부친은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장과 함께 귀향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영만이 대학을 진학할 무렵 부친은 결핵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고, 이후 영만은 고향으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한국인인 그에게 취업은 여의치 않은 일이었다. 결국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아키다 근교의 목장에 임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그 목장에서도 여전히 합당한 대우는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목장에서 일하면서 하나코라는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청소부 미이케 노인은 그에게 하나코 집안의 테릴사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한다. 그는 하나코에 대한 호감에다 현실적인 처우 개선 등 눈앞의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과, ‘조국을 배반하는’ 것과도 같은 귀화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부친 묘소에 성묘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결심한다.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묻힌 탄광촌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일본으로 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여전히 고집하는 어느 기인의 행

34) 『한양』, 1967년 1월호(236~253쪽)에 실린 金鐵洙의 소설 작품이다.

각을 우연히 듣고서, 영만은 그를 찾아가 만나보게 된다. 김영만을 만난 한동일은 조국을 버린 귀화인의 병질을 역설한다.

“자기 조국을 버린 자의 마음처럼 고통스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일컬으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불행은 조국을 저버리는 자의 입장입니다. 그 불행과 고통이 자자손손에 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일본 이름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 나가 묻 아이들에게 놀람감이 되는 것쯤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참기 어려운 누우침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본보기로 보시고 무슨 꼭두에 차는 일이 있어도 조국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조국을 버렸다는 더러운 이름과 고통을 자기 자식들에 전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252~253쪽)

이러한 역설과 더불어 한동일은 앞으로 귀화인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속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로의 심정을 나누는 두 사람은 어느덧 한마음이 되어 한동일이 ‘망향암’이라 이름 붙인 바위에 올라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地圖>³⁵⁾에서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인사를 나눌 때면 항상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인물 고인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의 지인 명수는 오사카에 연극 공연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인성과 재회를 하게 된다. 이는 인성이 1944년 일본군인의 신분으로 출정한 이후 20년만의 첫 만남인 것이다. 명수는 인성으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인성이 일본인이면서 왜 그동안 내내 한국인이라 자처했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임란 때 일본에 끌려온 도공 고경설의 후예로 대대로 도예를 해 온 집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할아버지 대에 가업을 중단하고, 할아버지가 조선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집안 내력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던 조모의 영향으로 인성 또한 ‘조선 사람의 피’

35) 『한양』, 1967년 8월호(137~145쪽)에 실린 金慶植의 소설 작품이다.

가 진해졌다고 한다. 뒷날 인성도 조부처럼 한국인 처와 결혼을 하고, 분단 조국의 현실 때문에 그동안 국적선택을 망설였으나 결국 처의 국적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족이나 조국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체념해 왔으나 이제는 민족적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자식 대에 되풀이시키지 않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결정적으로 명수의 연극 ‘내가 설 땅’을 보면서 자신은 ‘조선사람’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인성은 일본 땅에서 한국적을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망향>, <석등>, <지도>는 모두 긍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할 것을 강력히 설파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민족의식은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설득력을 지니기가 힘들다. 민족의식의 자각만으로 모든 현실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소설은 결말이 불분명하거나, 민족적 자각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감상에 젖는 경우가 많다.

<망향>의 주인공은 일본에의 귀화를 전제로 한 결혼과, 국적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다 여행을 떠나지만, 그 여행은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막연히 끝날 뿐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첨예한 현실적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 그저 고향을 바라보는 감상적 결말에 그치고 만 것이다. <석등> 역시 귀화 거부를 결심했으나 그 이후에도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석등에 투영해 외로움과 정신적 피로함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도>의 고인성은 오랜 고민 끝에 차별로 인한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결심하나 다음날 바로 불의의 죽음을 맞고 만다. 요컨대 이들 소설은 민족적 정체성 자각을 관념적으로 피력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불분명하고 감상적이며 갑작스러운 결말을 맺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하겠다.

2. '허공에 뜬 존재'의 뿌리 찾기와 '재일'의 자각

<산 밑의 마을>, <해후>, <소나기>는 단순히 민족의식의 자각을 역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인물을 통해 재일 한인의 정체성 갈등과 그 극복 노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산 밑의 마을>³⁶⁾은 주인공 순길이 뒤늦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느끼게 되는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순길은 대학 입학후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그전까지는 기타무라라는 통명을 써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일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학교 교칙에 따라 '李'라는 이름을 쓰면서 주위의 시선 또한 달라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내면에 스며 있는 '일본인'을 간단히 씻어내 버릴 수도 없었다.

“순길은 동포 학생들이 조직하고 있는 씨클에 얼굴을 내어도 어울릴 수가 없었다.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있을 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고,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을 때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는—순길은 이것 저것도 아닌 허공에 떠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140쪽)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아 순길은 1년전 처음 만나 서로 사랑을 싹틔워온 기미코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다. 그러나 기미코가 순길을 한국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불편해 하고 여전히 기타무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순길은 '이순길로서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한, 참다운 사랑은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36) 『한양』, 1968년 12월호(135~145쪽)에 실린 金鶴泳의 작품이다.

기미코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가 차 대접을 받으면서도 전형적인 ‘일본 가정’의 분위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보다는 기미코와 자신이 속한 세계의 판이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순길은 기미코를 오래간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니라 둘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기미코가 사는 마을을 떠날 때, 그 마을에도 어리석은 인습과 타민족에 대한 편견의 감정이 침침하게 번식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친숙하다고 여겨왔던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격리되어가는 듯한 서운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허공에 뜬’ 존재로 느끼며,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방인 취급 받는 경험을 느끼면서 강한 소외감에 젖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邂逅〉³⁷⁾는 이처럼 ‘허공에 뜬’ 존재인 재일 한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옛 출생지를 찾고 오래전 친구를 방문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과거를 찾아가는 탐색의 여행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근원을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구태는 오사카에서 불고기 집을 운영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모친이 살아 계실 때까지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으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그는 모든 것이 묘한 허무감으로 다가옴을 느끼고 무엇인가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친의 존재 덕분에 지탱되던 ‘고향’을 둘러싼 자기 정체성은 모친의 사망과 더불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에 하구태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며, 자신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찾고자 그는 출생지인 쿠사카미초를 찾게 된다.

하구태는 그곳에서 오래전의 친구 석문식을 찾아간다. 그와 이런 저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석문식이 자기 부친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음을 전해 듣는다. 석문식은 자기 아버지가 고향에 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낮익은 길에서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져 전신이 흙투성이가

37) 『삼천리』, 1975년 가을 통권 3호(198~216쪽)에 실린 高史明의 작품이다.

되도록 뺨을 길에 문질렀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감격하는 모습이 정작 석문식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편했다는 말을 한다. 아버지의 고향을 자신도 동경해 왔으나 정작 고향에 갔을 때는 외국에 간 느낌이 들었으며, 그곳에서 도리어 자신의 고향은 바로 쿠사카미초라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석문식은 일본에 돌아와 귀화 신청을 했으나 이유도 알 수 없이 거부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구태는 자신의 고향은 어디인지 고민한다. 그의 현실적인 존재의 근원은 쿠사카미초였으나, 1세들이 한국을 ‘고향’이라 말하듯 분명한 감정을 담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의 의식 한 켠에는 조선인이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구태는 석문식이 귀화를 거부당한 사연을 들으며 ‘조선인이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그 조선은 외국처럼 느끼고, 일본인이 되려 해도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석문식이 곧 하구태 자신이라 느낀다. 그 역시 조선인이면서 조선인이 아니며, 어디에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구태는 석문식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석문식과 함께 또 다른 옛 친구인 박회원을 찾아간다. 집에는 박회원은 없고 노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박회원의 집 안방에 걸린 박회원 부친의 사진을 보면서 하구태는 옛날을 돌이켜보게 된다. 팔다 남은 음식을 담은 첩통을 실은 리어카의 녹슨 바퀴 소리, 그 뒤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아이들 소리, ‘이 식충이들’이라 소리치는 노인의 소리. 음습하고 불쾌한 소리들로 가득 찬 고향을 그는 거부하고 싶고,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고향 따윈 없다고 외친다. 그 외침과 동시에 그는 한순간 칠혹 같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런 하구태에게 노파는 하구태의 모친이 일본 석탄장에서 일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모아 고향에 돌아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기에

그만큼 더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남편, 즉 박희원의 부친이 평생을 고향에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일본에서 죽었으며, 자신 역시 언제쯤에나 고향땅을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하였다.

“생각만이라면 고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땅이 바로 고향이다. 만약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면 깜깜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서는 이 땅이, 이 땅의 바람과 하늘이 고향이다. 설령 그것이 이국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을 꼭 두 손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나는 이 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16쪽)³⁸⁾

하구태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되지 못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고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 자신의 부모, 친구의 부모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고향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하구태는 고향이 없을 수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다만 꼭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필요 또한 없다. 그는 일본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일본 땅 쿠사카미초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뿌리인 것이다.

“갑자기 노파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조선은 통일해야만 해.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하지 않

38) 思うだけなら、故郷がないと思うことも不可能ではない。だが、それでもなお、その人間と切り離すことができない土地が、故郷というものだった。もし、そこを切り離そうとするなら、漆黒の闇に吸いこまれるほかないのである。……彼にとっては、この土地が、この土地の風と空が、彼の故郷であった。たとえ、それが異国の地であっても、彼はこの土地をしっかりと両手に抱きしめるほかないのである。……おれは、この土地から、出発するほかないのだ。

으면 안된다.’

하구태는 그 낮은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생각한다. 조선인인 내가 이 땅을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때 나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요, 할머니, 박할머니, 조선인으로서 통일을 향해서……나는 이 땅을 꼭 끌어안고 걸어가는 거다……걸어서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다면 조선의 하늘 위에 빛나는 별을 올려다 볼 것이다. 무수한 별을 이 양손으로 끌어안을 것이다.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발로서……걸어갈 것이다. 저 넓은 우주까지.“(216쪽)³⁹⁾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서야 앞날의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존재의 공허감을 느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 나선 주인공은 재일한인이라는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나아가 통일을 향한 전망까지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소나기>⁴⁰⁾의 주인공 ‘나’는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노쇠함을 부쩍 의식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본능적인 향수를 느끼게 되고, 마침 장모의 상을 당하자, 조총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단의 도움을 얻어 처를 고향인 제주도에 보낸다. 3년이 지나고 장모의 대상이 다가오면서 ‘나’는 처와 함께 고향을 찾을 결심을 한다. 장모의 대상도 치러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뵙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의 국적은 조선(북한)이지만 민단 측에서 고향 방문에 도움

39) ふいに老婆が、低く、しかししっかりとした聲でいった。「ドウシテモネ、朝鮮ハ統一シナイトイケナインダヨ。ドウシテモネ。統一シナイトイケナインダ！」
河求泰は、その低い聲を聞くと、強くうなずきながら、ふたたび思う。朝鮮人のおれが、この土地を両手でしっかりと抱きしめられたとき、おれの歩みが始まるんだよ……そうなんだ、ばあさん、朴のばあさん、朝鮮人として統一に向かってね……おれはこの土地をしっかりと抱きしめて、歩いていくんだよ……歩いてね……歩いて海を渡るんだ。歩いて海を渡ることができたら、朝鮮の空のうえに光る星を見あげるんだ。無数の星を、この両手に抱きしめるんだよ。朝鮮人としてね、この自分の足でね……歩くんだよ。あの廣大な宇宙までね……。

40) 『삼천리』, 1975년 여름(196~221쪽)에 실린金石範의 작품이다.

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그는 점차 조총련과 거리를 두고 민단을 의식해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 ‘조선요리’라는 간판을 ‘불고기’라고 바꾸고, 20년도 훨씬 넘게 사귀어온 친구이자 조총련에서 축출당한 활동가인 진문주와도 거리를 두게 된다. 그는 자신은 정치의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일엽편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망설임과 갈등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나’는 자기 가게 단골인 신문보급소 오오무라와 간판가게 야마모토의 빈번한 싸움을 보면서 자신의 땅, 자신의 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한다. ‘나’는 늘 스스로가 관객석에 있는 구경꾼이고, 땀 곳으로 갈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다른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유랑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며, 가령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가 길어진 것일 뿐이라 생각한다. 젊었을 적에는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결국 일본으로 몸을 피했지만, 지금 현재 ‘나’는 먹고 살만한 약간의 돈을 지닌 일개 장사꾼에 지나지 않으며 고향을 떠난 유랑인이며 현실적 편의를 위해 정치적 신념을 쉽게 바꾸는 소시민일 뿐인 것이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진문주가 모친상을 당해 이튿날 성복제를 할 예정이니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조직에서 쫓겨난 후 기관지인 <조선민보>를 못 받아보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 신문 또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다. 나는 한국에 가는 예정인 사람이 조직 활동가의 집에 얼굴을 내미는 건 그다지 이롭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하는 고민으로 부인에게 의논을 하나, 부인은 친구 어머니 성복제와 정치적 사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다녀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나는 고민 끝에 기관지를 챙겨 들고, 도중에 우연히 만난 민단지부장에게는 행선지를 숨기고 진문주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진문주의 집을 방문하니 진문주는 나를 맞으면서 기관지를 먼저 챙기며 ‘제사만으

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한다. 상가에는 조직의 활동원 몇이 모여 조직 내부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논쟁 끝에 진문주에게 것처럼 조직이 부패해 있는데도 굳이 조직으로 돌아갈 생각이냐고 물으니, 진문주는 자신이 조직을 그만둘 셈이라면 왜 고향에도 못가고 타국에서 장례 흥내나 지내며 애쓰겠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성복제가 끝나고 진문주는 문상객에게 인사를 한다. 그는 비록 자기 손으로 몰 한 잔, 갈치 한 토막 어머니께 올리지 못한 것은 슬프지만, 그 슬픔은 분단 조국에서는 자신만의 불행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불행을 없애 나가기 위해서도 조국 통일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 서야한다고 하였다. 나는 문상객의 치열한 토론과 진문주의 인사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사 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진문주 모친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를 다 같이 돌려보게 되었다. 문득 주소란을 보니 주소가 실제와 다르고 수신자 또한 가공의 인물이었다. 진문주에게 이유를 물으니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 한국 가족의 편지를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진문주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간판 변경 건'과 '한국 방문 건'을 떠올리고, 숨기고 있던 악행을 들킨 듯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시선을 피한다. '드디어 가느냐, 일처리를 제법 잘했구만' 하는 환청도 듣게 된다.

진문주가 싸준 음식 봉투를 안고 상가를 나서면서 나는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묵직근하며 머리가 불투명하고 막힌 듯하였다. 길을 나서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나는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비는 한순간 거세게 내리면서 빗꽃을 모두 떨어뜨렸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씻어내 버린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나는 고향 제주도의 빗꽃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껏 듣지 않으려고 하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고향에 가는 것인가. 실은 아까부터 나는 컷전에서 속삭이는 또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발을 붙들어 매는 그 소리를 나는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너는 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장모의 대상을 위해서, 아니 부모님의 묘소 때문에. 하지만 너의 손에는 아직도 그 전보 용지를 만졌을 때의 무거움이 남아 있다. 진문주 노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지금은 너를 압도하는 존재가 되었다. 수신자 이름에 상주의 이름이 없는 암호 같은 전보. 그 전보를 손에 지닌 너에게 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사오기(벚꽃의 제주도 방언), 사오기, 사오기. 흘러가는 개울물이 속삭인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는 고향의 말임을 나는 안다. 분명 고향의 말이지만, 머나먼 고향의 산에서 닮은 말이지만, 그 목소리는 웬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사오기, 사오기. 너는 이미 고향과 관계가 없다. 너는 타향에 사는 사람. 고향은 너의 것이 아니다.”(220쪽)⁴¹⁾

나는 본능적인 향수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진문주에 대한 죄책감과 진문주의 전보가 상징하는 역사적 아픔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선택했던 편의적인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은 일시적으로 일본에 잠시 머물 뿐인 유랑자라는 생각을 벗어나 이제 타향에 뿌리 내리고 사는 자임을 자인하게 된다.

41) いったいなんのために故郷へ行くのか?じつはさっきから、私は耳元でささやく別の聲を聞いていた。そして、その自分の足を引っ張ってる聲を聞くまいとしていたのだ。おまえは韓国へ行く資格があるのか?私の妻の母の「大喪」のために、いや、親の墓のために……しかし、おまえの手にはまだあのごわごわした電報用紙を持ったときの感触の重さが残っているのだ。陳文柱の老母の死は單なる死を越えて、いまはおまえを壓倒する存在になった。宛名に喪主のなまえがない暗号のような訃電。その電報を手にしたおまえに、韓国へ行く資格があるか……。サオギ、サオギ、サオギ、小川の流れがささやく。それは私の頭のなかで繰り返えされている故郷の聲なのを私は知っている。たしかに故郷の聲だが、はるか故郷の山から届いてくるのだが、その聲はどういうわけか私を呼んでいないのだ。サオギ、サオギ、おまえはもはや故郷とは関係がない。

나는 꽃잎을 다 떨구고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뺀 벚꽃 나무를 보면서 가슴에 한쪽 손을 얹어 격한 고동을 느낀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상쾌한 공기를 하였다. 나는 꽃이 떨어진 나무의 모습이 웬지 내 머리를 닮은 듯하다고 느끼고,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후두부를 만지며 혼자 웃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 소설은 파문당한 조직 활동가 진문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의식이 변해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 ‘나’는 우선 노쇠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무기력함을 벗어나, 꽃잎이 없어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쪽쪽 가지를 뺀 벚나무처럼 아직은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편의적인 정치적 선택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벗어나 내면의 갈등과 양심의 소리를 직시하게 된다.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 뿐이라는 유랑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은 타향에 사는 사람, ‘재일’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는 여전히 활동가가 아니라 고깃집 주인이긴 하지만, 이제 그는 ‘재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앞날을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VI. 마무리

재일한인 소설을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를 몇몇 들어 보면, 먼저 재일 1, 2, 3세대 문학의 특징을 각각 민중적 민족주의, 인간적 진실의 모색, 민족의식의 내면화로 나누어 살핀 유숙자의 연구가 있다.⁴²⁾ 그리고 재일한인 소설의 계보를 1세대의 민족적 글쓰기, 재일 중간세대의 자기 정체성 물기와 해답 찾기, 신세대 재일 작가의 탈국가, 탈민족적 글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핀 김환기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⁴³⁾ 이소가가 지로는

42)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 연구』, 월인, 2000.

43)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개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김환기 편, 새

재일한인 문학 50년의 변용을 재일한인 사회의 정치와의 긴장 관계, 조국과의 관계 양상, 생활과 의식의 양태, 세대의 변화 상황, 그리고 일본 사회의 정치, 생활, 문화에 걸친 가치관의 변용 및 일본문학계의 변화에서 찾기도⁴⁴⁾ 한다.⁴⁵⁾ 위와 같은 여러 연구 성과들을 주목하면서 필자는 『한양』, 『삼천리』, 『청구』에 수록된 재일한인의 소설 중에서 그들의 생활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 즉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을 대상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서 마무리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한양』, 『삼천리』, 『청구』에 수록된 소설 중에서 재일한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을 가려내는 일이다. 『한양』에는 모두 240여 편의 소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재일한인 작가⁴⁶⁾가 지은 생활사소설은 13편 내외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천리』에는 모두 43편의 소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재일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16편이며, 『청구』에는 10편의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데, 원수일의 <제주의 여름> 1편만이 그들의 생활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들 중에서 그 생활사적 내용이 뚜렷한 작품 16편을 선정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셋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재일한인의 떠돌이적 삶의 고난과 정착의 소망을 그린 소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방향의 한을 달래는 부류와, 일본에서의 생존 공간 확보를 위한 끝없는 도전의 삶을 모색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 전자

미, 2006, 15~46쪽.

44) 이소가이 지로, 「식민 제국과 재일 조선인 문학의 조망」, 김환기 편, 위의 책, 47~123쪽.

45) 이 밖에도 윤송아, 「재일 조선인문학 개관」,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167~189쪽. ;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 문학론」, 『재일 한국인 문학』, 숲, 2001. 5~36쪽 등을 들 수 있다.

46) 『한양』 소재 소설 중에서 재일한인 작가를 가려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각주 8)과 9)를 두루 참조.

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탈피>, <금부처>, <산하>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작품으로는 <통나무 다리>, <쓰레기 처리장> 등이 보인다. 떠돌이의 궁극적 소망은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 정착하려는 꿈이거나, 아니면 비록 일본 땅에서나마 생존의 가능성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삶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망으로 그칠 뿐 그것이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실을 이들에게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으로의 이주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수반한다. 재일한인의 꿈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주인노릇하며 사는 것이었다. 재일 1세의 이와 같은 목표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든 꿈으로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비록 그 강도는 다르나 2세와 3세, 그리고 4세, 5세에 이르도록 면면히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는 가족이산의 아픔과 그리움, 귀향과 재회의 꿈이 무산된 현실 등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대 간을 넘나드는 아픔의 공유, 그리고 아픔의 극복을 통한 재결합의 소망을 그린 경우도 있다. <뿔>, <落日>, <아버지와 아들> 등이 전자의 예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장마철>, <제주의 여름> 등은 후자의 예이다.

3) 재일한인 소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의식은 바로 ‘재일한인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데 대한 물음이다. 그런데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재일’은 존재하는 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소속·안정 욕구의 억압 현실과 좌표 설정의 고뇌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그 소설적 전개양상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石燈>, <望郷>, <地圖> 등은 민족의식의 당위적 주장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산밑의 마을>, <邂逅>, <소나기> 등은 허공에 뜬 존재의 뿌리찾기와 재일의 자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셋째,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긴 문제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 세 잡지에 수록된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중에서 이 논문에서 분석하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삼천리』 소재 작품 13편이 그 대상이다.

2) 『한양』을 무대로 재일한인의 생활사를 그리고 있는 작가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김철수, 김경식, 정철, 이순학, 이상직 등의 명단을 들 수 있다.

3) 『한양』과 『삼천리』에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을 2편 이상 발표한 작가로는 김철수, 김경식, 김학영, 김석범, 김태생, 정승박, 김달수 원수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을 작가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일이다.

4) 『한양』, 『삼천리』, 『청구』 등 각 잡지의 성격⁴⁷⁾과 이에 수록된 소설의 상관성을 검토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는 일이다.

주제어 :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떠돌이의 고난, 정착의 소망, 가족이산, 재결합의 꿈, 재일의 자각, 민족의식, 뿌리 찾기

47) 『한양』의 창간 의도와 종합잡지로서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제2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4. 101~122쪽을 참조하고, 『삼천리』와 『청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현홍, 「재일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4. 319~357쪽을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 『한양』, 1962년 3월호~1984년 3·4월호(통권 1호~177호)
『三千里』, 1975년 봄호~1987년 여름호(통권 1호~50호)
『靑丘』, 1989년 여름호~1996년 봄호(통권 1호~25호)
원수일 지음, 김정혜 박정이 번역, 『이카이노 이나기』, 새미, 2006

2. 단행본 및 논문

1) 국내논저

-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강상중, 『재일 강상중』, 삶과 꿈, 2004.
강재언 외,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역사비평』 통권8호, 역사비평사, 2007.봄, 234~267쪽.
김인덕, 『재일 조선인사와 식민지문화』, 경인문화사, 2005.
김인덕, 『강제연행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2.
김중희,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2, 167~324쪽.
김태영, 「에스닉 미디어에 나타나는 자기정체성의 전개」, 『한국민족문화』 제30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10. 209~230쪽.
김태운, 「일제 강점기 한국유이민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4)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박일 지음, 전성곤 옮김, 『재일 한국인』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범우, 2005.

- 서경식 지음, 임성모 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 손승철 외, 『한일관계사』, 민음사, 1994.
- 신명직, 『재일 코리안, 3色の 경계를 넘어』, 고즈윈, 2007.
- 신숙옥 지음, 장혜정 옮김, 『자이니치, 당신은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나무와 이파리, 2006.
- 신용하 편,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 안정화, 「재일한인 잡지 소재 ‘김지하 담론’의 정치적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419~439쪽
- 유숙자, 『在日한국인 문학 연구』, 월인, 2000.
-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
- 윤일성,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269~307쪽.
- 이광규, 『在日韓國人』 (일조각, 1983)
- 이광규, 『재외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9~72쪽 및 143~164쪽.
-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12. 361~393쪽.
-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359~390쪽.
-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 박이정, 2005.8.
-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89~142쪽.
- 이현홍, 「재일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319~357쪽.
- 임채완, 장윤수 외, 『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 집문당, 2005, 95~156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2000년도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중간보고서』,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위원회, 2001.3.

정태현,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21세기 자기인식, 역사비평 통권8호, 2007
봄, 199~233쪽.

최석신 외,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2005.

하병욱 지음, 홍구희 옮김, 재외 한국인의 국적문제, 열린책들, 2002.

하상일, 「재일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
문학논총』제42집.

한국문학회, 2006.4. 391~418쪽.

한국구술사학회연구회, 『구술사』, 선인, 2006.8.

한국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2) 국외논저

姜在彦, 『在日からの視座』, 新幹社, 1996.

吉岡増雄 편, 『在日 朝鮮人の生活と 인권』, 사회평론사, 1980.

김달수 외, 『日本の中の 朝鮮』, 太平出版社, 1974.

김용해, 『本名わ 民族の誇り』, 碧川書房, 1996.

閔寬植,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白帝社, 1994)

磯貝治良·黒古一夫 편, 『在日文學全集』 전18권, 東京, 勉成出版, 2006.

<Abstract>

The Pattern and Significance of Novels of Koreans' Lives in Japan in Ethnic Magazines

Lee, Heon-H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kinds of novels through which the Koreans in Japan portray themselves and the significance which the novels carry. For this, sorted out were 30 novels of the ethnic Koreans' lives in Japan among numerous ones put in such ethnic magazines as 『Hanyang』, 『Samcheolli』 and 『Cheonggwu』. Then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patterns, 16 works typical of each pattern were analyzed to infer the significance, and the study topics not quite dealt with in this paper were presented. It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attern and significance of novels of the Koreans' lives in Japan

(1) The first pattern is the novels that depict the hardships of the ethnic Koreans in Japan who live a floating life and their hope of settling down. These novels are in turn divided into the types of novels about the Koreans who drown their nostalgia and the types of novels about the Koreans who endlessly challenge themselves to survive in Japan. Wanderers ultimately desire to work hard and save enough money to go back home and settle down or to live an endless

challenging life for survival in Japan, which is a place far away from home. However, their desire never gets off the ground, and it rarely comes true.

(2) The emigration to Japan accompanies the separation from a family. The ethnic Koreans in Japan dream of returning to their hometown and living as a host. Mostly such a dream just remained hard to fulfill. The dream, however, has continued on without ceasing until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and further, the fourth and fifth, though the intensity is different. Some novels depict the agony and longing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reality of their unfulfilled dream of homecoming and reunion. Others depict the shared agony transcending the generation difference and the hope of reunion through overcoming the agony.

(3) The orientation to be an 'ethnic Korean in Japan' is simply changeable accor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r times to which he/she is exposed. Taking this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e author categorized the reality of oppressed desire for belonging and stability and the agony of where to belong, and examined the pattern in which the themes develop in novels with a result that there are two types. Some works show a natural argument for national consciousness and its limits. Others depict ethnic Koreans' root chasing and self-awakening of ethnicity in Japan.

2. Future projects.

(1) To study the works not analyzed in this paper, among the novels of the ethnic Koreans' lives that were put in the three magazines, particularly over 10 works in 『Samcheolli』.

(2) To study the authors who contributed the novels of the ethnic Koreans' lives to 『Hanyang』, such as Kim Cheol-su, Kim Gyeong-sik, Jeong Cheol, Lee Sun-hak, Lee Sang-Jik.

(3) To analyze in terms of an author the novelists who contributed more than two works of the ethnic Koreans' lives to 『Hanyang』 and 『Samcheolli』, such as Kim Cheol-su, Kim Gyeong-sik, Kim Hak-yeong, Kim Seok-beom, Kim Tae-saeng, Jeong Seung-bak, Kim Dal-su, Won Su-il, so that the study can be deeper and wider.

(4) To examine and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 of each of the magazines, such as 『Hanyang』, 『Samcheolli』, 『Cheonggu』, and the novels put in them in order to further the significance.

Key Words : novels of Koreans' lives in Japan, the agony of wanderers, desire for settlement, family separation, dream of reunion, self-awakening of ethnicity in Japan, national consciousness, root chasing